



복합재질 사용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

안광보 / (주)농심 상품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 · 포장기술사/식품기술사

1. 서론

식품을 포장하는 목적은 식품을 생산, 저장, 수송, 판매 및 소비 등 여러 과정 중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오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보존성 측면, 식품에 미생물이 부착하거나 이물이나 유해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위생 안전성 측면, 제품의 운반, 판매 및 소비를 하는데 간편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편리성 측면, 제품의 수송 및 취급과정에서 충격이나 진동 또는 가압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성 측면,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용물을 명확히 표시하여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판매촉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형태와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식품수요의 증가, 교통 및 운반수단의 발달에 따른 유통구역의 확대, 식품포장 방법의 발달에 따른 유통기한의 연장 등으로 유통과정 중 식품의 품질유지, 손상방지, 위생적인 안전성, 취급 및 소비시의 편리성 등을 한층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한 식품포장은 식품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식품포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판매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포장의 기능 중 정보전달 기능, 품질보증기능, 환경 적용성 기능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리라 본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플라스틱 1회용 포장재 및 용기의 폐기물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 하여 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귀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지적이 아닌 범국가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도 이제는 Green Marketing시대로,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이윤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복합재질 사용규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단체와 업계에서는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식품포장을 중심으로 복합재질의 필요성에 대하여 업계의 입장에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식품포장에서 복합재질의 필요성

2-1. 포장의 보호기능 상실

식품의 경우 PL제도, Recall제도 등 품질보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는 유통기한이 식품위생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정된 유통기한 내에 수분흡수에 의한 Caking 및 갈변현상, 지방의 산패 등을 방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필름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2-2. 포장공정의 생산성 저하

소비자 Needs,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제품은 다품종·대량화되고 또한 자동화 및 고속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포장, 고속포장, 생산연건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따라 적절한 생산성과 기계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재질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2-3. 제품의 상품성 저하

식품 중 스낵 등 일부제품은 유통중 부스러기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Air Cushion 포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가스 Barrier성을 지닌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재질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이로 말미암아 판매저하의 원인이 된다.

2-4. Shelf Life를 향상시켜 포장재사용 감소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보존성을 확립하여 Shelf Life를 향상시켜 유통기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제품에 맞는 적절한 Barrier성이 요구되는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재질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제품을 장기 보존하여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Barrier성이 부족한 단일재질로는 Shelf Life를 저하시키고 유통기한을 짧게 하여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보다 증가시켜 포장폐기물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된다.

2-5. 수출상품 개발 부진과 신수요 창출의 걸림돌

수출지역의 다변화와 신수요 창출은 국내산업을 육성시키는 첩경이 된다.

고온, 다습지역 등에서의 유통과정 중 적절한 품질을 보증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제품에 맞는 적절한 Barrier성이 요구되는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재질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복합재질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복합재질 사용을 규제한다면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제품의 신수요 창출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2-6. 포장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 시스템 구축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는 쓰레기가 안나 오게 하거나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Reduction or Prevention), 발생된 쓰레기도 완전히 회수하여 재이용, 재활용하는 방법 (Reuse or Recovery)이 바람직한 우선순위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 모두를 시도한 후 최후의 수단이 매립 (Landfill) 방법이다.

현재 국내 여건상 연포장재의 포장폐기물의 처리 현황은 단순한 소각 (Incineration)이나 매립 (Landfill)에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일재질과 복합재질을 구분하여 복합재질만의

사용 규제는 효과면에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포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7. 포장의 과학적인 이해와 업계 입장을 고려한 정책 부재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구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재충전(Refill) 제품의 확대생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사용되는 포장재 또한 제품의 특성상 복합재질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환경부의 개정안과는 모순된 규제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8. 무포장도 결코 환경보존에 좋은 영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에 적절한 포장재를 구성한 복합필름을 사용하여 포장하지 않으면 식품의 손상 및 자연 쓰레기 발생으로 제품손실은 물론 질병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히 구성된 복합재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포장사회라고 할 만큼 상품의 판매경쟁에 앞서기 위하여 포장재료 및 포장기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포장 폐기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단순한 폐기물이 되기도 하지만 회수 및 처리를 거치면 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변모되며, 자원절감과 환경보존, 그리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귀중한 재생원료로 변모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자원절약,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존의 이점이 있는 회수 및 재활용 재고를 위하여 세제, 재정 지원, 회수의무화, 수요창출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제조업체는 복잡해져가는 포장재료의 구성에 발맞추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 그리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대책, 즉 폐기물대책이란 모든 재질에 대한 LCA(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규제가 만능이 아니라 유용한 재질을 사용 후 모두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월간「포장계」
광고 및 구독문의
02)835-9041